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6월 2(주일) 제1494호

AI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

6월 3~4일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이재훈 위임목사, 최진호 교수, 김도균 대표 강의

“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4)가 6월 3일과
4일 'AI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을
주제로막 오른다. 6월 3일(월)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 서울시 양재동 The-K호텔에서 진행된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에서는 3일 박은지 교수(서
울벤처대학원대학교)가 사회를 보고, 이재훈 위임목사,
최진호 교수(미국 에모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도균
대표(Cloudflare 한국지사)가 강의한다. 교회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실전 강의도 한다.

4일에는 AI 실무 활용을 위한 선택강의가 열린다. 이
재호 대표(미국 리빙사운드), 조명연 대표(CM MEDIA
GROUP) '교회 음향 프로되기, 하루면 OK', CGN 제작
기술실 '프로들에게 배우는 촬영과 라이브 중계', CGN
AI 리서치팀, CGN 커뮤니케이션실 'AI 실천편, 디자인,
풍당 200% 활용하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외에도 다
양한 업체와 기관 홍보부스 엑스포, 구인 정보를 담은 리
크루팅존, 기독 굿즈 마켓플레이스, 참가자 기념품 및 경
품 이벤트 등도 준비되어 있다.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
은 홈페이지(fondantmc.com)나 하단 QR코드, 당일 현
장 등록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현장 접수에서 할



인해 준다. 등록비는 4만 원이다(온누리교
회 성도 한정). 문의: 02-3275-9372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마리아행전 '엠티드림'

6월 12~13일 각 캠퍼스, 14일 양재 사랑홀
이재훈 위임목사, 이인호 목사, 이한영 부총장 강의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2024 마리아행전 '엠티드림'이 막 오른다.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
지 양재온누리교회와 각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6월 12일(수)과 13일
(목)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캠퍼
스 성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14일
(금)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모든 캠퍼스가 함께 모여 연합기
도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12일
과 13일에는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집회 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
다.

2024 마리아행전 '엠티드림'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라
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6월 12일 이재훈 위임목사 '용서의
엠티드림', 13일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간구의 엠티드림', 14일 이한
영 부총장(아신대) '예배의 엠티드림'을 주제로 강의한다.

2024 마리아행전 '엠티드림'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신청을 서둘
러야 한다. 6월 5일(수)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토요일예배와 일요일예
배, 수요일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회비 2만 원을 내고 접
수하면 된다. 온라인 및 전화접수, 행사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복장
은 밝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다.

문의: 서빙고(02-3215-3667, 3201)

양재(02-570-7277),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2024 달려라풍당 3,707명 참가

6월 5일까지 후원금 입금 및 이벤트 응모

2024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참여 열기
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4월 27일부터 5월 26일
까지 성도 3,707명(1,296가정)이 참가했다. 달려라풍
당 참가자들이 정한 후원 목표 총액은 약 6천5백만
원이다. 지금까지 2천5백만 원(40%, 263건)이 입금됐
다(5월 29일 기준).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6월 5일까지 참가신청서에
작성한 후원 목표 금액을 CGN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보내면 된다. 이름과 생년월일
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예: 김풍당 2102155). 달려
라풍당 후원금 전액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 제작과 국내외 라이선싱에 쓰인다.

2024 달려라 풍당 참가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modoo.at)
에서 응모하면 된다. 감동적이고 우수한 사연을 남긴
참가자를 위한 '최고사연상' (4명), 운동 최다횟수 및
거리 기록을 세운 참가자를 위한 '최다/최장거리상'
(3명), 달려라풍당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을 남긴
차세대 참가자를 위한 '차세대어린이상' (5명), 달려
라풍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진과 사연을 남긴 참가
자를 위한 '베스트포토상' (10명)을 시상한다. 시상자
발표는 6월 20일(목)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에 공지한
다. 시상식은 6월 27일(목)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통일위원회, 탈북 다큐멘터리 상영

6월 13일 서빙고 본당, 6월 18일 양재 사랑홀

통일위원회에서 탈북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포피아' (매들린 개빈 감
독)를 6월 13일(목)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6월 18일 오후 7
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상

영한다. 남북통일에 관심 있는 성도
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상영
시간은 총 115분이다.
'비온드 유포피아'는 탈북민의 생
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폭로한 미국 다큐멘터리 영
화다. 2023년 작품으로 올해 1월 국
내에서도 개봉했다. 거짓의 유포피
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실
태, 그곳을 탈출하려는 일가족 5명
의 위험한 여정, 그들의 탈출을 돕
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을 생생하게
담았다.

문의: 010-5792-3290

2024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
re)'가 '하나님의 용사, 다윗' (시
18:30)을 주제로 시작된다. 올해 차
세대 어드벤처 교사강습회는 6월 1
일(토)부터 6월 15일(토)까지 이어
진다. 6월 1일(토)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6월
8일(토) 오후 1시 양재, 수원 6월 15
일(토) 오전 10시 대전, 오후 1시 부

천, 인천 각 캠퍼스에서 열린다.
차세대 어드벤처 교사강습회에서
는 노희태 목사가 기도회 및 주제강
의하고, 각 차세대 교역자들이 찬양
율동 강의, 교재 강습 등을 한다. 차
세대 여름캠프는 7월부터 8월까지
부서별로 외부 및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열린다.
문의: 02-3215-3521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치유의 기적, 구원의 초청장이 되다

사도행전 9:32~43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한 병자를 고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 여러 도시, 예루살렘 밖 유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온 유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헬라 문명 시대에 많은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치유의 기적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때로 병 고침을 받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은 사도들이 행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두 지역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지명으로는 ‘룻다와 옴바’입니다. 옴바와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곳이 룻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벤 구리온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옴바는 텔아비브에 나중에 포함되었는데,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북으로는 애굽에서 시리아로 올라가는 중간에 있고, 사론 평야로 이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서로는 예루살렘에서 옴바로 가고, 남북으로는 애굽과 시리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는 지역이 룻다입니다. 구약에서는 ‘룻’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룻다로 가고, 또 룻다에서 옴바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다와 옴바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믿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하기 위해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믿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반 순교 사건 이후 흩어진 이들이 룻다와 옴바로 흩어져 있을 수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모였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복을

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대!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믿음을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한 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방문과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이 지역을 여행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방문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룻다에서 베드로는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명령합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 간단한 선포에 애니아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병자를 만나는 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병자를 고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대!

둘째, 예수님이 고치신 것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베드로가 룻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라고 말했을 때 애니아에게 예수님에 관한 정보나 소식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전혀 소식을 몰랐다면 당황했을 뿐이고, ‘그가 누구인데 나를 고치냐?’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을 때 애니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단어를 못들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보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이 애니아에게서 일어난 일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가 고침 받음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영광을 받고, 베드로를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을 받대!

셋째, 애니아는 큰 병에 걸렸었습니다. 당시 중풍은 완전한 불치병이었는데, 큰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병이 없는 한 기적적인 치료의 은혜를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병에 걸린 이들을 고치기 위해 오신 의사입니다. 깊이 병들어 있는 죄, 누구도 깊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육체는 건강할지라도 교만이라는 큰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마비된 것 같은 죄의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실지라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땅에 계실 때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상태에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

넷째, 애니아가 고침을 받을 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믿음뿐입니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8~9

“죄인된 이들이 생명을 받는 게 영원한 회복, 완전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절에서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애니아가 그 믿음의 증거로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애니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는 때 죄의 질병이 치유되고, 때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습니다.

욥바에서 일어난 더 큰 기적

룻다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욥바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욥바에서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고 불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셈족인 아랍어 계통이고, 그리스식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리는 여제자입니다. 사울로도 불리고, 바울로도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도르가’라는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 첫 독자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식 이름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두 이름 모두 ‘영양’이라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다비다는 신실하고 선한 제자였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라고 합니다. 39절에서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겹옷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합니다. 다비다가 속옷과 겹옷을 직접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선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성령의 열매와 은사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선한 여제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특히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에게 청했습니다. “다시 살려달라”고 청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욥바의 선한 제자가 죽어서 너무 슬프니까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 영영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은 박수하며 기뻐합니다. 죽을 때도 태어날 때와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죽음이 두려워 어린아이처럼 영영 울고, 주변 사람들은 “잘 가시오. 속이 후련합니다”라면서 박수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는 밝고 환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을 가지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평평 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비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왔을 때 시신을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절차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 가서 조문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며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지를 묻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룻다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애니아를 고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과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 없이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라고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에서는 이미 주어진 예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시간

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치라”고 하실 때만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모든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틀림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세 번 행하셨는데, 베드로가 모두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것은 예수님이 아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와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크하는 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기도하시는 것을 연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방에서 모두 내보내고 기도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예수님이 아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는 “소녀야, 일어나라”(달리다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또한 예수님이 앞서 행하셨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같이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이라면 다시 살아난 이가 예수님처럼 지금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생입니다. 잠깐의 회복입니다. 일시적인 소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적의 결과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시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많은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임을 보여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이 사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려고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단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적

여러분, 어떤 큰 문제, 큰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이 낫는 기적을 통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장수하게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룻다와 욥바에서 병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적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인 된 이들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치유의 기적은 마중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의 마중물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의 결과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영역주권과 일반은총 (7)

프로골퍼 최경주에게 개울가 ‘작은 섬’의 의미

2024년 5월 19일, 매우 비중 있는 한국골프 투어(KPGA) 대회에서 역사상 최고령 나이로 최경주 프로가 연장전 끝에 감동의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경주 프로가 표현한 것처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종종 골프와 비교하곤 한다. 이 대회에서 최경주 프로가 우승하는 과정은 가히 한 편의 드라마였다. 2위와 다섯 타 이상으로 벌린 1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최경주 프로는 체력 저하로 결국 마지막 홀에서 동타를 허용하고,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런데 첫 연장전에서 최경주 선수의 두 번째 샷이 그린 근처 개울 쪽으로 튕겨 들어갔다. 시청자 대부분 불을 개울물에 빠뜨린 이 실수로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개울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개울 중간에 있는 가로 2m, 세로 1.5m 정도 아주 작은 섬에 놓여 있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최경주 프로는 스핀 없이 쓸어치기에 완벽한 잔디 상태에 살포시 놓인 불을 환상의 어프로치 샷으로 홀 주변에 붙였다. 그는 승부를 다음 연장전으로 끌고 갔고, 결국 한국 골프 역사상 최고령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일반은총은 신자와 불신자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은총이다. 과학, 문화, 경제,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구기 종목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

의 경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술’이라는 표현을 붙인다. 격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기 모습과 자세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우아하며 질서와 균형의 아름다운 조화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프로 선수들의 고된 훈련으로 빛어지는 최고의 운동감각을 관람하면서 우리가 ‘예술’이라든지 혹은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탁월한 재능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반은총을 부여하신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세상살이에 대한 막연한 무임승차 신앙은 적절하지 않고, 경계해야 한다. 불신자 운동선수들이 인고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빼어난 실력과 성취는 결코 신자 운동선수의 기도와 신앙생활만으로 대치할 수 없다. 훈련의 고통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좋은 실력과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은총의 법칙이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세상 속 삶에서 매우 성실하게 본업에 충실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은총의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면, 신앙인들은 구태여 세상 속 삶에서 ‘왜’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강인한 인상의 ‘탱크’ 최경주 프로 PGA 대회 8회 우승 등 통산 30회 우승자인 베테랑 선수가 우승 후 가진 야외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울컥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로 시작된 그의 인터뷰 내용은 이어진 기자회견장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골프를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우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죠. 몸은 더 부담되고. 그렇지만 주님이랑 기도했어요. 우승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일랜드가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암만 생각해도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치킨 했는데 이런 우승을 극적으로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최경주의 경기 실황을 중계하던 방송국 캐스터와 해설자가 개울가 잔디 섬 사건을 보고 “기가 막히게 운이 좋다”는 말을 두 번이나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했음을 믿는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일반은총과 달리 구원의 축복인 특별한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다. 그런데 구체적 기도제목의 대전제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 6:9).

“아버지”라는 고백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그리스도인은 일반은총 법칙에 따라 일상 삶에서 성실해야 하고, 또한 그 성실성의 결과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로 기적을 요청할 수 있는 특별한총 수혜자들이다. 일반은총과 특별한총의 충돌, 기도의 더딘 응답, 혹은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최경주 프로에게 개울가 작은 섬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특별한총의 상징이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말해주듯 골퍼로서의 일반은총 법칙에 성실했던 그에게 개울가 작은 섬이라는 특별한총의 콜라베이션(Collaboration)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최경주 장로가 인터뷰에서 보인 눈물은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의 자녀들을 일반은총과 특별한총으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눈물임을 우리는 안다.



신우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특별기고

최고의 희생

이번 현충일에는 군복을 입었던 순국선열들의 엄청난 희생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필자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최고의 희생’을 한 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다. 그런데 요즘은 현충일을 캠핑 가거나 파티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자주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희망, 꿈, 가족, 친구들을 포기했다. 필자가 전직 해병대 출신이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엄격한 규율, 하루 24시간 지켜야 할 의무에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큰 위험 속에 내놓았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 15:13).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얻게 된 자유에 대한 감사를 말이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을, 조국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훌륭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떠오

른다. 이제 70대 노인이 된 ‘제임스 라이언’이 가족을 데리고 노르망디에 있는 군인 묘지를 찾았다. 그가 반세기 전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는 임무를 이끌었던 존 밀러 대위의 무덤을 방문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임무가 끝날 즈음 밀러가 치명상을 입었다. 그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유언을 남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떤 추수 밭에서든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가?”

“라이언 이걸 받게. 그걸 언어.”

라이언은 십자가가 새겨진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매일 그날 다리 위에서 제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당신이 보시기에는 제가 당신들 모두가 저를 위해 해준 것

을 얻었기를 소망해요.”

눈시울이 붉어진 라이언이 아내에게 고개를 돌리며 “내가 잘살았다고 말해줘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요”라고 한다. 아내는 비장한 어조로 라이언에게 “당신은 그래요”라고 답한다. 그리고 제임스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무덤에 경례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나의 책인 <이것이 인생이다(The Good Life)>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아시다시피 라이언 일병은 밀러 대위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의 온 힘을 다해 좋은 인생을 살려고 했다.

현충일은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 군인과 가족, 친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

도에게 감사하며 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우리도 라이언처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떤 추수 밭에서든지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삶을 묵상해보라. 이번 현충일에는 적어도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군에서 복무하신 분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나처럼 공방이든, 상점이든, 어디서든 군복을 입은 남녀를 보게 되면 다가가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하게 될지 모른다. 당신이 섬기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원문: breakpoint(2022.05.30)



故 찰스 쿤스
(前 닉슨 대통령 법률
보좌관, 교도소 선교회
설립자, 쿤스기독교세
계관센터 설립자)

생명의 가치와 존엄한 죽음

1.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의 해외 현황과 부작용 3. 의사조력 '자살'을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할 수 있나
4. 안락사 논의 전 선결과제 - 호스피스 완화의료 5. 성도의 죽음과 임종기 돌봄의 실재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의사조력자살 법안 제정되면 견잡을 수 없는 부작용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성산생명
윤리연구소 부소장)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락사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안락사인 ‘의사조력자살’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하지만 2024년 5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의미 없는 삶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고통받으며 죽는 대신 내 의지로 깨끗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막연히 존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생명을 종결시키는 의사조력자살, 즉 안락사는 결코 안락한 죽음이 될 수 없다. 내 호흡이 자연스럽게 그치는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삶이 힘들다며 처방약을 먹고 자살하는 의사조력자살은 목숨을 잃어버린 본인은 물론이고, 고통을 견디는 대신 죽음을 택한 이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안락하지 않은 억지 죽음일 뿐이다.

이미 안락사를 허용한 여러 나라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안락사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다. 병의 고통 앞에서 너무 쉽게 안락사를 택하려는 ‘생명 경시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극도의 신체적 통증이 없더라도 정신질환이나 고독함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어떤 노인은 너무 오래 살았으며 의사조력자살을 택했다.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우울증에 의한 자살 충동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조력자살을 권유받는 황당한 일마저 생기고 있다. 어느 나라나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법의 제정은 고통 받는 말기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공허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적극적으로 환자의 통증이나 우울증을 조절하려는 노력 대신 스스로 쉽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주위에서 포기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락사 법안이 제정되면 고통을 통과하고, 인생을 장엄하게 마감하는 존엄한 자연적인 죽음의 의미가 점차 오염될 수 있다. 자연사를 맞이하는 임종의 순간을 지키는 것은 활기찬 생명이 주는 것과 또 다른 생명의 깨우침을 준다. 죽음 앞에 마지막 가쁜 숨을 힘겹게 내쉬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숨 쉬는 삶에 대한 겸손을 배우게 된다. 육신의 죽음 이후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얻는다. 존엄한 죽음의 모습이 약물 투여로 인한 자살로 후회 끝나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가버리 여기



하는 일이다. 삶의 완성이 되는 죽음의 시간을 너무 성의 없게 대하는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이 마치 좋은 죽음을 완성해 줄 것으로 오해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이 몇 차례 기고를 통해서 폐기된 지난 법안의 문제점을 기록하고, 안락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 죽음과 바꾸고 싶은 정도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락하고 존엄하게 생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논하고자 한다.

안락사의 정의와 논란

첫째, 안락사의 정의다. 안락사의 구분은 크게 식물인간이나 중증 치매 환자에게 물과 영양분 공급을 끊어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소극적 안락사’와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언론에서 사용하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적극적 안락사를 말한다. 보통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환자의 혈관에 직접 투여하면 안락사라 부른다. ‘병든 동물을 안락사 시킨다’는 의미와 같이 사용한다. 치사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환자 본인이 먹거나 투여하면 ‘의사조력자살’이라고 부른다.

둘째, 대한민국에서의 안락사 논란이다. 2022년 6월 안규백 의원이 2018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조력존엄사’를 끼워 넣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을 뜻한다. 안 의원은 국민의 80% 이상이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그 설문지의 질문은 “조력존엄사를 도입하여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는 일에 찬성하는지?”였다. 아무래도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조력), 존엄하게 죽을 수 있다면(존엄사) 이보다 좋은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안락사가 생명 경시의 위험이 있다고 해도 그 법안은 대상을 1) 말기 환자로서 2)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상황일 때 3)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셋째, ‘조력존엄사법’이라는 명칭의 문제다. 안 의원은 의사조력자살법을 발의하면서 ‘조력존엄사’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확한 용어인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 PAS)’ 대신 존엄사를 사용한 것은 ‘자살’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마치 자살이 존엄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위험한 일이다. 법안 발의 이후 사회 각계에서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최근에는 이를 의사조력죽음이나 의사조력사망으로 표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말은 통상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단어 앞에는 죽음을 일으킨 원인을 적는다. 사고사, 질식사, 추락사처럼 말이다. 의사조력사망이라고 표현하면 의사의 조력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해된다. 의사가 살인의 주체라는 오해가 생긴다. 그런데 조력존엄사건, 조력사망이건 그 어떤 명칭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숨기면 국민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없다. 국민에게 의견을 묻고 판단을 받을 목적이라면 정확하게 ‘의사조력자살법’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설문 역시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하여 고통받는 말기 환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처방 약물을 먹고 자살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대상자 결정 문제와 고통의 기준 모호

넷째, 법안 대상자 결정의 문제점이다. 개정안에는 의사조력자살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심사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본인이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견을 전달한 자를 조력자살 대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얼핏 보면 엄격하게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이미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말기 환자라는 기준도, 수용

하기 어렵다는 고통의 기준도, 본인이 희망한다는 것도 모호할 때가 있다. 이 경우 대개 조력자살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조력자살을 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기 마련이다. 그것을 죽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모호함은 ‘말기 환자’의 기준이다. 수개월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언제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있는지 시점을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준이 수개월의 여명만 남은 말기 환자뿐 아니라 수년 후에도 사망할 수 있는 불치병의 영역으로 확대된다. 6개월 남은 시한부 환자에게는 조력자살이 허용되고, 12개월 남은 환자는 안 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도 환자가 몇 개월 내에 죽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고통받는 시간이 말기 환자보다 긴 근위축증이나 치매 같은 다른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 두 번째 모호함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의 기준이다. 여기서 고통은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되는 통증(pain)만 의미하지 않는다. 육체적 통증을 넘어서는 정서적 고통(suffering) 또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의면할 수 없다. 어떤 이에게는 고독함이, 어떤 이에게는 일상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는 자신의 질병으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 자폐나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삶이나 세상에 대처할 수 없는 게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이다. 처음에는 지독한 암성 통증과 같이 진통제로 조절이 잘 안 되는 말기 환자의 고통이 대상이었는데, 이미 합법화된 나라를 보면 불치병이나 정신질환, 치매,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알코올 중독까지 조력자살 시키는 쪽으로 법안을 확대했다.

그 세 번째 모호함은 본인의 희망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다. 애초 법안은 성인의 온전한 자기결정권에 따른 조력자살 희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어떠한가? 또는 더 어린 11세 이하의 아이들이 죽기를 원한다면 어리다고 본인 희망을 무시할 것인가. 평등 원칙에 위배 되기에 결국 벨기에, 네덜란드는 나이를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본인이 안락사를 원한다는 말을 못 하는 중증 치매 환자는 어찌할 것인가. 치매가 오기 전 사전의료의향서에 치매가 오면 안락사를 원한다고 말해놓았다면, 치매 환자는 지금 당장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안락사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의사조력자살 법안은 일단 제정이 되면 견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계속)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

온누리 사회선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이 지난 5월 25일(토)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온누리 사회선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막 올랐다. 사회선교본부 리더십 및 성도 231명이 참석했다.

사회선교본부 10주년 기념 포럼은 사회선교 역사 소개, 대학청년부 사회선교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이재훈 위임목사 특강, 임희국 교수 특강, 패널 토의, 공동체 1다락방1사역 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역사’를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의 발자취를 나눴다. 대학청년부 사회선교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11개 팀이 참가했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이해인, 염길현, 백은지 자매(SNS청년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에 공모전에 참가했다”면서 “앞으로도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목사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비전은 국내외의 공휴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휴를 베푸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기를 바란

다”고 권면했다.

임희국 교수(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선교’를 주제로 강의했다. 임 교수는 “복음을 전파하고, 시대와 상황의 요청에 응하는 사회선교는 두 바퀴의 수레처럼 항상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선교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나누는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임희국 교수, 정운오 장로, 박순길 장로, 박승호 선교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공동체 1다락방1사역 사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 마포공동체,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공동체,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가 발표했다.

구경용 성도(양재온누리교회 도곡공동체)는 “다락방 지체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을 찾아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다”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장로(사회선교본부 다문화팀)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가 10년 동안 어떻게 달려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뜻깊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회선교가 더욱 확장되고,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사회선교
사역팀 소개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대학청년부 사회선교 공모전 당선작

문턱 낮추고, ‘대학청년부 사회선교팀’ 세우기!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사회선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청년 8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사회선교를 들어본 적 있다’가 70%, ‘들어본 적 없다’가 30%였는데, 70% 응답도 대학청년부 사회선교 공모전과 이기훈 목사님의 리더십 특강

때 처음 들어본 청년들이었다.

둘째, 청년들이 사회선교를 하고 싶어한다. 설문에 응답한 청년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87명이 사회선교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데 사회선교에 접근하는 방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사회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거나 신청

과정에 문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사회선교의 문턱을 낮춰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선교의 문턱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SNS청년부 아웃리치가 떠올랐다. SNS청년부 국내외 아웃리치 신청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회선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차용하려 한다.

첫째, 예배 시간에 사회선교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사회선교 리더십들과 지속적인 교제 시간을 마련한다. 더불어 사회선교를 경험한 지체들의 간증을 나눈다. 사회선교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둘째, 사회선교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여러 교육과정이 있다. 사회선교도 바이블아카데미, 기독교 OTT 풍당 등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사회선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SNS를 활용한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사회선교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사역별 최신 현황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캘린더를 활용해서 사역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개설해 신속하고 활발한 소통을 돕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청년부 사회선교팀’을 세워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섬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선교 영역에서 은사를 쓰임 받도록 달란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둘째, 청년들의 마음이 가는 사역을 제안해서 운영한다. 셋째, 유튜브, 인스타 등을 미디어에 좀 더 친숙한 청년들에게 운영을 맡겨 사회선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기회를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 이해인, 염길현, 백은지 자매(팀브리)

공동체 1다락방1사역 사례 발표

도곡공동체의 이웃 향한 사랑 그리고 섬김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공동체는 희락다락방, 공휴다락방, 화평다락방, 소망다락방, 은혜다락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곡공동체 모든 다락방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사회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희락다락방은 하나공동체, 정선 동강교회,

우리들학교를 섬기고 있다. 한국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탈북민들을 지원하고, 하나공동체 예배를 섬기고 있다. 북한에 쌀을 보내고, 탈북민 청년들이 지내는 기숙사에 반찬을 전달하는 봉사도 했다. 2018년 이후 쌀을 보내는 사역이 정부의 제재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농

촌교회를 새롭게 섬기게 되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정선 동강교회를 도왔다. 봄에는 밭을 경작하고, 여름에는 블루베리를 소출하는 일을 도왔다.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섬기기도 했다. 희락다락방에서는 탈북민 학생들이 공부하는 우리들학교 봉사도 하고 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삶을 사는 탈북 학생들이 교회와 사회의 일꾼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공휴다락방은 굿윌스토어에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굿윌스토어를 찾아가 물건을 분류 및 선별하고, 포장해서 판매를 돕는다. 1년에 두 번은 장애인 100명에게 간식과 선물을 준다.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화평다락방은 서울농아교회를 섬긴다. 농아교회는 국내 및 해외 선교사 파송 사역을 하고, 유튜브로 수어 설교 방송을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농아교회를 방문해서 수어로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한다.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소망다락방은 양평덕수교회와 송파구 거여동 임마누엘집을 섬긴다. 양평덕수교회로 아웃리치를 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교실’을 운영했다. 거여동 임마누엘집에는 쌀,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업 재활 작업을 지원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도 했다.

은혜다락방은 재한몽골학교를 섬기고 있다. 재한몽골학교는 학생 1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주민 학생 350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급식 봉사와 설거지, 청소 등을 한다. 앞으로도 도곡공동체가 사회선교에 앞장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기대한다.

/ 구경용 성도(양재온누리교회 도곡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쪽방 주민들 곁에는 우리가 있다!”

서울역희망공동체와 남대문희망공동체의 사역과 사명



김광훈 장로
(서울역희망공동체 담당)

사회선교본부는 사역의 성격별로 사회책임, 사회봉사, 사회나눔, 사회화합, 한누리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중에서 사회봉사팀에 속하는 ‘서울역희망공동체’와 ‘남대문희망공동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

역희망공동체와 남대문희망공동체는 서울역 인근 쪽방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팀이다. 쪽방 주민들 곁에는 늘 서울역희망공동체와 남대문희망공동체가 있다. 쪽방 주민들과 둘도 없는 친구다.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 돕는 ‘서울역희망공동체’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사회선교본부에 속해 있는 서울역희망공동체는 온누리복지재단이 2018년 2월부터 서울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립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도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동자동(용산구) 쪽방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다. 40여 명의 봉사자가 2인 1조가 되어 쪽방 주민 중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주민들을 월 2회 방문한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의 말벗이 되어 주고,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 사항을 파악해서 쪽방상담소에 전달해 개선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쪽방 주민들의 세탁물을 수거해서 쪽방상담소에 설치된 세탁기로 세탁해주기도 한다.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은 매월 두 차례,



남대문희망공동체가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동자동에 위치한 ‘엘림하우스’에 모인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준비한 선물을 들고 주민들을 방문한다. 주민들에게 챙겨간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과 삶을 나눈다. 서울역희망공동체가 섬기는 쪽방 주민 대부분 이동이 불편해서 이웃과 사귀기 어려워서 월 2회 찾아오는 봉사자들을 손꼽아 기다린다. 어버이날에는 연세 드신 주민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명절과 크리스마스에는 절기에 맞는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수박 화채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한다.

서울역희망공동체 봉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40여 명의 봉사자가 동역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섬겨야 하는 특성상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다. 서울역희망공동체 자원봉사는 쪽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겨울철(1~2월)과 여름철(7~8월)에는 잠시 멈춘다. 소외되고, 외로운 쪽방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 줄 봉사자들을 기다린다.

문의: 010-7622-1478(심남주 팀장)

늘 쪽방 주민과 함께 ‘남대문희망공동체’

남대문희망공동체는 “가장 낮고 좁은 곳에서 환난 당하고 고통당하고 빚진 자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마 25:33~46)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10년 태동했다. 당시 여호수아청년부 청년들이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남대문희망공동체의 모태다.

지금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동자동 ‘엘림하우스’를 기반으로 서울역 인근 노숙자와 쪽방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고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 봉사자들은 삶이 힘들고 지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현재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작은방 가족(쪽방 주민을 일컫는 말)이 40여 명 정도 되고, 사역자는 성인팀 20여 명, 청년팀 20여 명 소속되어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의 사명은 서울역 일대 쪽방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방하면서 나눔과 예배, 양육, 필요한 물품 후원 등을 제공해

서 그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을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 현실에서 양재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사역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대문희망공동체의 사역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도회를 마치고 쪽방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전도와 심방을 하고, 함께 주일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에는 작은방 가족들에게도 시락을 나눠 준다. 매주 목요일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고(목요카페), 주중(화, 목, 금)에 성경통독, 성경필사, 성경공부와 찬양, 새신자 교육, 일대일제자양육 등을 하고 있다. 매주 순예배도 드린다. 부활절, 어버이날,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아외 절기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성도와 믿지 않는 주민들을 초대해서 음식과 물품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블레싱 시간도 갖는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성찬식을 한다. 연 1~2회 세례식도 하고 있다. 작은방 가족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1박2일 성령수련회도 개최한다.

남대문희망공동체가 이 많은 사역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주중 사역자(체조 스트레칭 취미교실 건강강의), 주중 성경공부(BEE 쉽게 강의, 성경 강해), 주일 및 주중 심방(격려, 위로, 상담, 전도), 찬양사역 등에 동참할 사역자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캘리그라피, 액세서리 공예, 사진, 성악, 배관기술, 요리 등에 재능 있는 작은방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의 재능을 더욱 키워줄 재능선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의: 010-2495-2319(박은태 팀장)

사역칼럼



김민숙 권사
(양재A공동체, 남대문희망공동체 조이플싱어즈)

내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진다. 나를 참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다.

조이플 싱어즈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좋아하는 찬양이 참 많다. 이 찬양은 요즘 부르며 은혜를 많이 받는 곡이다. 조이플 싱어즈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그 날 함께 부른 찬양이

들’이라는 뜻으로, 남대문희망공동체 찬양팀이다. 동자동 엘림하우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조이플 싱어즈가 찬양한다. 찬양을 좋아하는 작은방 형제님들도 함께 모여 찬양한다. 미리 나와 청소와 테이블 준비를 하는 계광원 반장님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엘림하우스에 오셔서 청소와 쓰레기를 정리하신다. 엘림하우스에 보내주신 천사 같다.

조이플 싱어즈 연습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형제가 있다. 뇌출혈로 인해 어눌한 언어와 불편한 걸음이지만, 늘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는 인구 형제다. 한번 부르면 음정과 박자를 금방 외워 버리는 김동윤 형제, 최근 함께하게 된 영남 형제도 조이플 싱

어즈 멤버다. 영남 형제님은 조이플 싱어즈의 만형 같은 분이다. 찬양을 참 잘하신다. 음이 맞지 않아도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 순규 형제님과 이동윤 형제님도 빼놓으면 섭섭할 조이플 싱어즈 멤버다.

조이플 싱어즈는 찬양 음이 맞지 않아도 힘차게 감격하고,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신나게 찬양을 부른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만끽하며 찬양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조이플 싱어즈에서 찬양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조이플 싱어즈라는 이름으로 형제님들과 찬

양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다. 조이플 싱어즈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해 주고, 슬퍼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도 매주 주일예배를 드린다. 요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매주 주일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합성이 엘림하우스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그 뜨거운 기도의 합성과 기쁨의 찬양이 동자동 골목마다 울려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동자동이 변하는 그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조이플 싱어즈의 사역도 계속될 것이다.

동자동이 변하는 그 날까지!

미리 보는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4)

AI와 기독교 교육

현재 AI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을 반복하며, 고도화되고 있다. 그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빠르다. 크리스천들은 이미 도래한 AI 세상에서 어떤 대안을 계획하고, 시도해보고 있는가?

빈부 격차에 따라 커지는 교육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대부분 교육이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교육이 모든 아이에게 동등할 것 같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줌(Zoom)으로 선생님과 만나 출석 인사와 숙제를 내주고, 오후에 다시 접속해서 숙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온라인 수업이 끝난다. 학교에서 받던 교육의 개념이 달라지고, 교육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간이나 경제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과외나 사교육으로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은 공교육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마저 빼앗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현재 교육 시스템 대부분이 온라인 및 원격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AI가 많은 교사를 대체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AI가 얼마나 잘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가진 AI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것을 위해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세상에서 개발한 AI 모델을 따라가

다 보면, 세상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개념을 만들어 퍼뜨려 어느샌가 예수가 메시아 중 하나로만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체감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기술의 발전 속도로 볼 때 그에 따른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에 수년 뒤에는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으로 'AI 기독교 교육'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AI 기술을 활

현재 챗GPT 사용 인구가 하루에 10억 명이 넘는다. 챗GPT가 저렇게까지 뚝뚝해진 이유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일단 모아서 절대적인 양을 기반으로 AI가 학습하며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도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AI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선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버전이

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계속해서 비영리 기관인 CGN에서 풍당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간증, 양육 콘텐츠 등의 데이터를 모으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데이터 검증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으며 기술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AI 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도 있어야 한다. 무궁한 역사를 지닌 기독교에서 각 교회와 기관의 리더들이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들의 데이터가 많이 모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개인과 의견을 주고받는 장(場)을 만드는 시스템, 기관과 교회의 연합을 통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교회가 보살필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위한 모델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AI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는데 기독교가 움직이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 AI 세상에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참여해서 현재 세상에 나온 기술들을 실습해보고, 발전 속도를 빨리 체감하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



최진호 교수
(미국 에모리대학교)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하는 AI를 만들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 참여, 소통, 실습 및 실행이 필요하다.”

용한다면 교육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한 명 한 명에 맞춘 개별 학습이 가능해지기에 말 그대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커스텀(Custom)이 된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적게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교육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테스트와 개발 속도가 매우 느린 것 같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가진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교회학교도,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독교가 담론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열린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계속 업데이트된다. 그러므로 먼저 방대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각 기관과 교회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통한 학습 모델을 만드는 시도가 중요하다.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나 책 등을 한 번에 모으는 시도부터 해보는 것이다. 또는 수많은 사람의 간증 데이터를 모아 기독교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non-profit(비영리) 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독교적인 데이터가 얼마나 모이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테스트하면 서 도전해야 한다. 그것을 기독교 OTT '풍당'

AI,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

AI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매체가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 대중은 앞으로 어떤 것이 유망할지 툴(Tool) 활용법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어서 이것 보다는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부터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AI 기술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NPU(신경망처리장치)'다. AI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 데이터 학습에는 수많은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해 설계됐고, 컴퓨터 그래픽, 영상 편집 등에 주로 사용되어왔다. GPU는 대량의 연산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는데 탁월하기에 과학 연산이나 딥러닝 분야에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한 'NPU 시대'로 향하고 있다. 'AI 칩'이라고도 불리며, 동시다발적인 여러 연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 NPU는 인공지능 분야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이다. 게다가 GPU보다 에너지 효율도 훨씬 좋다.

둘째, 생성형 'LLM(대규모 언어 모델)'이다.

이것은 언어 기반 작업에 중점을 둔 대량의 텍스트 학습 기술이다. 수십억 개의 매개변수를 고려할 수 있고, 단어, 문장, 문맥의 관계를 파악하며, 복잡한 맥락의 패턴을 내부적으로 자동 학습한다. 챗GPT와 같은 LLM은 적은 입력으로 효과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얻은 방대한 지식과 패턴을 기반으로 한다. 미래에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기에 화두가 되고 있다.

“AI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서 집단 지성, 감성, 영성이 가장 발달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최근 AI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OpenAI'의 'ChatGPT'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대화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AI 발전의 급물살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의 경우 2022년 11월 30일 출시 이후 지금까지 2년도 안 돼 여러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챗GPT는 인간과 경쟁해 이미 변호사, 회계사, 의사 시험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의료기록, 방대한 전 세계 의료데이터를 근거로 질병의 가능성과 진단의 정확성을 향상하

게 했다. 이것을 근거로 한자에게 더 나은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예술계에서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챗GPT가 이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창작 작업의 보조수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한 지자체에서 진행한 공모전에서는 AI 기술로 만든 음원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법적인 규제나 적용방식이 국가별로 모두 다르고, 기술 발전 속도보다 시스템 정비가 뒤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원작이라는 것을 AI 시대에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딥페이크(DeepFake), 악성 Bot의 증가 등으로 출처 확인이 불가능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래에는 같은 건물, 같은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사라질 수 있다. 앞으로 독창성에 대한 갈급함이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AI가 채울 수 없는 사역자들과 교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기독교 미디어도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AI 기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면서 집단 지성과 집단 감성, 집단 영성이 가장 발달한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겠다. 가능하면 더 많은 교회가 모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개념을 넘어서서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는 기독교, 성도들의 개념으로 세상과 구별된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김도균 대표
(Cloudflare 한국지사)

맛있는 말씀 해설

“...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뜻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란 ‘내가 기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매직(magic)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요술램프 지니처럼 말이다. 간혹 교회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의 보좌를 흔들어야 한다고 믿으며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단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기도란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란 영혼의 호흡, 생명의 땀줄과 같은 것이다. 기도는 믿음의 연합 가운데 친밀한 영적인 교

제와 사귀를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그 무화과나무 뿌리가 뽑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말씀하셨다. 참된 믿음이란 “이 산

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신 은혜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믿음의 대상을 자신으로 착각해서 자기 뜻과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 뜻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미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남을 먼저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일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듯이, 그 믿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능력, 선하심을 보게 되는 섭리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

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미움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남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

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하면 그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장차 성전 정화를 통해 예루살렘성전이 멸망되고, 십자가 안에서 새 창조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락한 유대교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새 언약을 통해 어떤 특정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뜻대로 기

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동시에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가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마가복음〉 11장 22~24절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강조하고, 25절은 기도와 용서의 관계를 강조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한 것이 믿음과 용서라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마지막 때 성도의 합당한 삶

6월 3~9일

〈베드로전서〉 1:22~5:7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성도는 진리에 순종해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세운 제도에도 복종하고,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묵상포인트 1:

부르심의 자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며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먼저 선행과

묵상포인트 2: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품과 경건 수준이 드러난다. 성도의 복음적 삶은 가정에서 시작돼 대인관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비결을 묵상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혹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정결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한다.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며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한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이 지닌 소망에 대해 늘 대답할 준비를 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복종한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성도의 특권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도구다. 불같은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지 묵상하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에 성도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

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한다. 성도를 연단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해야 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장로들은 양 무리를 돌보되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자원해서 섬기며,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젊은 자(청년)들은 나이 든 장로들에게 겸손히 순종해야 하고, 성도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나는 어떤 존재(신분)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나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자.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참고 견디고, 선한 마음으로 그 상대를 위해 복을 빌어 주며,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기로 하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자. ▶내가 가진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비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신자에게는 신앙생활의 간증을 나누며 천국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 ▶나는 어떤 시험(시련)을 겪고 있는가? 그 시험이 내게 주는 영적 유익을 묵상하며 고난을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아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군기자가 꿈인 아들(김**, 25세)은 어릴 적부터 밀리터리와 그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전공해서 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홍콩, 지난해에는 러시아로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가는 아들을 보며 걱정됐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정서적 어려움이 그곳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믿음이 조금씩 싹트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픈 아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병원 창 너머 파란 하늘과 나무들, 병원 곳곳의 문구들, 아들의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말을 건네준 혈액암 자매가 낙심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있어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수술과 치료 과정이 어려운 숙제처럼 남아 있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화 집사(부천온누리교회)

멘토가 멘티에게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개인의 자아실현’이다. 한 유명연예인이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세대의 가치관을 잘 대변한 축사다.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부딪쳐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일을 거부해야 할 때가 많다. 다니엘은 신앙 양심을 따라 왕궁의 음식을 거부해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며 예의를 갖춰서 요청했다(단 1장). 에스더는 3일 금식기도 이후 예의를 갖춰 왕 앞에 나아갔다(에 4장).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들에 복종(롬 13:1)하고, 사랑으로 대한 것이다(마 19:19).

그런데 예의를 갖춘다고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다. 세상은 이럴 때 ‘Speak Up’, 즉 자신을 위해 외치고, 싸우라고 한다. 성경

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인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요셉이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나오면서 왕의 만수무강을 첫 번째로 언급했고, 왕을 여전히 존중했다(단 6:21).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애굽에 팔려 온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겼다(창 45:5). 이 인내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주인을 바꾸면 회복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부어진다.”

되는 것이다. 다니엘과 에스더,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언가를 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다니엘,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 인간의 소욕이 꺾일 때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자아가 죽는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되지 않은 이유는 성공을 위한 욕심, 질투, 미움, 시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욕심, 질투, 미움, 시기 등은 죄의 부산물이자 죄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죄다. 죄의 부산물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 살 때 따라온다. 때로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돌이켜야 할 죄일 수 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죄의 본질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불안해지고, 불평이 쌓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처럼, 해결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고는 세상 가치의 유혹에 속절없

이 무력해지고,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주인을 바꾸는 자(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부어진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믿음(용기)을 강하게 하고,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다니엘과 에스더, 요셉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주인 된 삶에서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진정한 회복이 이뤄진다. 회복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믿음의 간절한 기

도가 인내를 가능하게 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힘이 생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할 때마다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지혜로 믿음(용기)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요셉과 다니엘 인생의 목표가 총리였을까? 아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일 은혜를 구하며, 믿음(용기)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다(때론 패배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가게 된다. 필자도 오늘 새벽기도회에서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여전히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고백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인이 되고 싶은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겸손과 지혜, 믿음(용기)을 간절히 구하는 자일 뿐이다.



강찬휘 멘토
(W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친밀한 부부 관계의 열쇠

부부가 함께 ‘부부세미나’에 참여하면 많은 유익을 얻는다. 최근 ‘부부코칭세미나’에 참여했던 후기를 보면서 더욱 친밀해지는 부부 관계의 열쇠들을 발견했다.

“그동안 막연하게 대화했고, 직면이 아닌 회피를 했다. 소통이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 부부코칭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했다.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평소 대화를 꺼리고 서로의 마음을 막연히 추정하면서 지냈다. 부부 코칭세미나에서 우리의 대화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부부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것 같고,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진 관계가 되었다.”

부부들의 진솔한 후기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정제됐다는 신호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대화를 회피한다.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대화를 하고자 한다.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할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애정이 식은 관계라면 딱히 할 말이 없고, 몹시 서먹해진다. 잦은 갈등 경험과 화해를 반복한 관계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회피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인식될 정도로 관계 온도가 낮아졌다면 친밀한 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부는 종종 대화에서 오해와 갈등을 경험한다. 오해와 갈등을 겪는 불편한 경험은 마음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곤 한다. 따라서 경직된 부부 관계의

전형적인 특징이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 대화가 피상적이고 막연하다. 깊이 있는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랬어”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서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마음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한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하고, 헛바퀴 도는 느낌을 받는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가벼운 인사 정도 나누는 수준의 의사소통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화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은 대화 회피와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대화의 중심 자리에 나오지 않고 주변만 돌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그만 서성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부부가 대화의 자리로 오기 어렵다면 부부세미나 혹은 부부 모임 등에 참여해서 함께 대화를 연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상대방의 마음을 추측한다. 배우자의 생각과 마음을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추측한다. 충분한 대화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추측은 왜곡된 정보로 입력될 가능성이 크다. 요동치는 부정적 감정의 파도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전달되어서 또 다른 오해와 미움 등을 쌓게 된다. “꼭 말로 해야

하나요? 이 정도 살았으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틀림없이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야!”라는 식의 추측은 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배우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막연히 ‘그럴 것이다’, ‘아니! 틀림없이 당신은 그래’라는 식의 추측과 추측에서 오는 확신은 회피에서 기반한 부정적인 반응이다. 추측이 아닌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도 있다. 혹시 무안을 당하더라도 물어보고, 대화를 시도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내 말을 가로막았을 때 틀림없이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자존심 상해가면서 물어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 말을 가로막았던 의도가 궁금해요”라고 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 부부는 추측이 아닌 대면을 해야 한다.

부부코칭세미나 이후 부부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더 많이 대화한다. 궁금함은 친밀한 관계를 위한 매우 유익한 조건이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야 한다. 궁금함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 열정으로 표현된다. 상대방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다. 질문할 때 추궁하는 식이면 곤란하다. 배우자에 관한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근거로 하는 따뜻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지?” 등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질적인 시간을 부부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신호다.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때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굉장한 이벤트가 아니라도 좋다. “늘 바빴었는데 이번 주에 오랜만에 영화를 함께 봤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는 정도여도 충분하다. 친밀함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놓는다.

셋째, 부부의 친밀감을 추구하며 솔직해진 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 부부는 친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결혼 초기와 같은 열정적인 친밀감이 아니더라도 신뢰와 헌신에 기반을 둔 안정적인 친밀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헌신과 수고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누렸으면 좋겠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온누리사랑챔버 창립 25주년

사랑챔버단원, 교사, 부모 50여 명 참석

온누리사랑챔버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행사가 지난 5월 28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렸다. 온누리사랑챔버 단원과 교사, 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사랑챔버는 1999년 바이올리니스트 손인경이 발달장애인 5명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시작됐다.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유럽, 미주, 홍콩, 일본 등)에서 600여 회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주 동부 예일대학교와 한인교회 순회공연을 다녀왔다.

김명희 권사(양천공동체)는 “온누리사랑챔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에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사역본부에서 사랑부 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를 개강한다. 6월 15일(토) 오후 2시 30분부터 16일(일) 정오까지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사랑부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5만 원이다.

문의: 010-8567-1808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제이홈·선한울타리 ‘공동세미나’

6월 16일 오후 5시 30분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사회선교본부 제이홈양육팀과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16일(일) 오후 5시 30분 온누리청소년문화센터 3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공동세미나는 배우 신애라 집사가 1부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제이홈양육팀과 선한울타리사역팀이 사역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제이홈양육팀이 우리나라 입양위탁 현황을 설명하고, 입양위탁 조건 및 절차 등을 알려준

다.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는 한국 보육원 현황과 자립 준비 청년 실태 등과 보육원 아동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해 설명한다.

입양과 위탁, 보육원 아동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2-3215-3434



6월 화요성령집회 ‘Essence’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6월 화요성령집회가 ‘Essence’를 주제로 막 오른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6월 화요성령집회 ‘Essence’에서는 6월 4일 최성민 목사 ‘Essence 1’, 11일 최성민 목사 ‘Essence 2’,

18일 정한호 목사 ‘Essence 3’, 25일 이서진 목사 ‘Essence 4’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6월부터 화요성령집회가 리뉴얼된다. 예배 안내 및 자세한 내용이 매주 화요성령집회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 김다애 기자

양재 열린새신자예배 ‘전도 토크콘서트’

6월 한 달동안 일요일 오후 7시 사랑홀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6월 한 달 동안 전도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특별한 만남이 있는 어느 날 오후’를 주제로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전도 토크콘서트 ‘특별한 만남이 있는 어느 날 오후’에는 유튜브 박위(위라클), 섹소포니스트 양현욱, 박현우 대표(이노레드), CCM 가수 지미션, 가수 윤복희, 가수 범키, 성악가 홍혜란, 최원희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구글 폼(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토크콘서트 초 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도 한다. 6월 4일, 11일, 18일, 25일 저녁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QR코드 참고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전도 토크콘서트 신청QR



온라인 기도회QR

NGO 더멋진세상, 6~8월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6월부터 8월까지 ‘모리타니 영유아 영양지원 캠페인’을 한다.

아프리카 모리타니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40%인데, 그중에서 23.7%가 영양결핍이 원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동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취약 계층 어린이 영양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가정이 자녀를 5-9명 두고 있어서 영양 불균형 치료 대상 아동에게 배포되는 영양 가루를 다른 자녀들이 함께 먹으면서 치료가 더디고, 재발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만큼 영양을 지원해서 치료 아동의 온전한 회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는 더멋진 세상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개강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가 개강한다.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새골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1주차와 2주차는 토요일만, 3주차와 4주차는 1박 2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6월 21일까지 아이스쿨(school.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부부당 35만 원, 자녀 1명당 5만 원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피플퍼즐’, ‘남녀 차이’, ‘가정제도의 원리’,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 및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10-9022-5228

전도사역본부·공사랑 스포츠 맞춤형전도집회

캄보디아 외국인 노동자 11명 결신

전도사역본부와 공사랑이 함께 지난 5월 26일(일) 안산M센터에서 스포츠 맞춤형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안산 및 인근 지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 공사랑 회원, 안산M센터 성도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후에 외국인 노동자 27명과 함께 축구를 했고,

저녁에 맞춤형전도집회를 열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5명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고백했다.

맞춤전도집회에서는 합합 공연과 CCM 가수 지미션 공연, 캄보디아 노동자 공연, 간증 등이 이어졌고, 여성진 목사(광명공동체, 전도본부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웃사랑팀, ‘식사를 합시다’

서빙고동, 보광동 등 독거노인 50가구와 식사 교제

서빙고 이웃사랑팀이 지난 5월 26일(주일) ‘식사를 합시다’ 행사를 개최했다. 서빙고동, 보광동, 청파동, 효창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50가구와 서빙고 이웃사랑팀 67명이 식사 교제를 했다.

황옥화 권사는 “늘 혼자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

를 대접할 수 있어서 기뻐다”고 전했다.

조미정 성도는 “부모님 같은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사랑을 전하는 서빙고 이웃사랑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의: 010-8949-4019

/ 홍하영 기자

“선교사에게 발을 대여하자!”

2000선교본부 재능기부팀에서 ‘선발대(선교사에게 발을 대여하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선발대 프로젝트에서는 올해 여름 병원 진료, 가족 방문, 사역 보고, 국내 훈련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차량을 지원해 준다.

6월부터 8월까지 최소 2주 동안 선교사들에게 국산 준중형 이하(아반떼, K5, 레이 등) 차량을 대여해 주면 된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010-2822-9970



환경위기와 창조세계의 희망!

2024 KGMLF 출판감사예배 및 세미나가 지난 5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렸다. KGMLF(한국글로벌선교지도자포럼)와 온누리교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선교사, 목사, 박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책 <환경위기와 창조세계의 희망> 출판감사예배, 2부 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 책 <환경위기와 창조세계의 희망>에는 지난해 11월 마임비전빌리지에서 같은 주제로 열린 제7회 KGMLF 발표 논문들이 담겼다.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제10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를 준비하며



/ 고길범 장로(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스포츠가 선교의 사다리

해마다 6월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온누리교회가 전사적으로 집중하는 선교에 스포츠를 통해 힘을 보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된 온누리열방탁구축제가 10회째를 맞는다. ‘탁구를 통해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애매한 질문으로 온누리열방탁구축제가 닦을 올렸다. 1회 대회는 우루무치 MK스쿨에 탁구대를 보낼 목적으로 개최했다.

스포츠 선교하면 쉽게 떠오르는 종목이 태권도다. 태권도는 한국이 종주국이고, 많은 선교지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무슬림권과 공산권 등 교회 개척이 어려운 영적 전투 지역에서 특히 빛을 발하고 있다. 축구도 빠지지 않는다. 할렐루야팀 선수들이 시합을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이 국민의 뇌리에 남아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은 탁구다. 1974년 사리아보 세계대회에서 이애리사-정현숙 복식조가 첫 우승을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카퍼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에서 양영자-현정화 복식조가 금메달을 받고 기도하던 모습도 생생하다. 지난 1990년 지바 세계탁구대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단일팀을 이뤄 단체전 우승을 하고 함

께 기쁨을 누린 장면도 갈무리로 남아있다.

과연 성경에 스포츠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바울은 스포츠인이 아니었을까? 기분 좋은 추축을 해본다. 추론하건대 월계수 승리의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시상하던 장면에서 유래되었고, 달음질과 권투 등을 연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도 스포츠에 상당한 관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故 하용조 목사님도 개인 탁구 라켓을 갖고 계셨고, 양영자 선수에게 탁구 레슨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당시 방배동 탁구장에 3개월 레슨비를 지원하시며 목사님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셨다고 들은 적이 있다. 10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를 천국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응원하고 계신다고 확신한다.

10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를 온누리청소년 센터에서 개최하는데 감회가 남다르다. 이번 온누리열방탁구축제 목적도 역시 선교다. 9회 온누리열방탁구축제를 통해서 파키스탄과 몽골에 탁구대가 보내졌고, 일본과 레바논, 중국 내몽골 자치국을 방문해서 그곳 선교사들과 함께 탁구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스포츠가 선교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러브소나타 ‘효고’ 참가자 간증



/ 박복응 안수집사(성북공동체)

첫날 가스펠 나이트에서는 찬양과 중보기도를 했고, 러브소나타 당일에는 일본인 참가자들을 위한 선물 포장에 담당했다. 성북공동체 팀원들은 중홀 로비 바닥에 앉아 선물 포장 작업을 했다. 350개나 되는 선물 포장 작업에도 누구하나 불평 없이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참 감사했다.

집회 전에는 참석하는 일본인들에게 ‘칸게 이다시마스(환영합니다)’, ‘슈쿠후쿠시마스(축복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실새 없이 몰려오는 일본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팀원들의 눈빛과 은혜 넘치는 모습으로 환영했던 기억은 잊지 못할 감동이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러브소나타 ‘효고’와 성북공동체에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결신서 작성 시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결신서를 계수하는데 역대 최대 결신자인 643명을 확인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격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배웅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기쁨과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며 포옹했다. 일본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역사의 현장

잘 자라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이 성북공동체의 헌신을 사용해 주셔서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었다.

‘고베 개척과 신학교’도 방문했다. 요시다 카시 교장선생님이 “신사참배 강요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저지른 큰 죄악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울컥했다. 신학생들, 교직원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일본어로 찬양하는데 일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일본 신학생들의 ‘God bless you’ 찬양을 들으며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사실 신학교 견학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고베 개척과 신학교 방문은 그 선입견이 사라지고, 벽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러브소나타 ‘효고’와 고베 개척과 신학교 방문을 통해서 어둠과 공포가 가득했던 일본 고베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벽찬 감동을 간직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공동체 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이성구 안수집사(일산파주공동체)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나는 2008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고, 2015년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다. 교회에 등록하고 1년 만에 순장을 시작으로 다락방장과 공동체 총무,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자 등으로 열심히 섬겼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조금씩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상의해서 올해는 성경 공부와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잠시 숨 고르기를 하기로 했다.

연초에 ‘무슨 강의를 수강할까’ 고민하고 검토하다가 ‘큐티스쿨’ 강좌가 눈에 들어왔다. 약 15년 전에 ‘큐티베이지’이라는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었다. 매일 큐티하고, 순예배에서 큐티 나눔도 비교적 충실히 한다고 자평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의 큐티 생활을 돌아보면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숙제하듯 의무감에 <생명의 삶>을 펼친 적도 많았다. 큐티스쿨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첫날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기본에 충실

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깊은 묵상보다 순예배에서 나눠야 할 ‘적당한 묵상’을 했었다. 사실 순예배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나의 삶을 나누는(민감한 부분은 숨기고) 정도였다.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큐티스쿨에서 가능하면 ‘큐티의 루틴’을 정립하려고 했다.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찬양과 기도, 말씀 3~4회 읽기, 묵상, 그동안 등한시했던 ‘적용하기’를 시작했다. 반드시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랬더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15~20분 정도만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큐티스쿨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었다. 잘못된 큐티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성도들도 3~4년에 한 번 정도 ‘보수교육’ 받는다는 심정으로 큐티스쿨을 수강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원한다.

해피맘 수료 간증



/ 김소현 성도(감사의기적교회)

회복 그리고 선물

해피맘은 회복의 시간,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해피맘을 하기 전 나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 우울함이 가득한 어둠 그 자체였다. 해피맘에서 “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위된 백성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결혼하고 남편에게 인간적인 기대와 의존을 하고 싶었는데, 기대와 다른 남편의 태도와 상황에 실망을 느꼈다. 세 아이에게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했다. 해피맘을 하면서 나의 무기력한 마음과 스스로 벽을 쌓고 고립되고 있던 지난 결혼생활을 돌아보았다. 내가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나만 사랑하는 악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평하고, 괴로운 감정을 없애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잊으려 해도 다시 올라오는 쓴뿌리들이 있었다. 부모님께 어릴 때 받았던 상처와 결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하나씩 배워 갈수록 그동안 왜곡된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피맘 모임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

고,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완고함을 깨시기 위해서 남편을 붙여주셨고, 나로 인해 남편과 아이들이 희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절망스러웠던 나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무엇이든 잘해내고 싶었고, 실수하면 수치스러웠던 나의 마음과 직면하고, 내가 어떤 엄마였는지를 직면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참 어려웠다. 해피맘에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용서했더니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는 아내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로 살기를 기도한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거룩한 후손을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해피맘은 어머니와 아내로서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장로칼럼

〈사도행전〉과 선교적 교회



김현주 장로
(서대문공동체,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

2024 서울-인천 제 4차 로잔대회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에베소서〉를,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사도행전〉을 강해 본문으로 택했다. 한국 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주제로 40주에 걸쳐 같은 본문으로 공동 강해 설교를 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를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성경책이다. 구약까지 포함해 성경 전체를 요약하기도 하고,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중간 고리 역할도 한다. 우리의 과제는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 것이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교회 구성원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과 일터가 선교지라는 인식을 하고,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 이웃들을 섬기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교회 부흥의 동력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스테반의 순교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 이것이 선교

적 교회의 모델이고,故 하용조 목사가 선포한 ‘Acts29’의 비전인 ‘교회를 세우는 교회’이다. 제3차 로잔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발표했다. 〈케이프타운 서약〉을 고찰해 보면, 선교적 교회와 사회선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약 7번과 9번에서는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총체적 선교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이 죄로 인해 깨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 이를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것들을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이 사회선교본부 주제 말씀인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연결된다. 〈케이프타운 서약〉 2부 행동 요청에서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선포하고 있다. 다원적이고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언급한다. 진리와 다원주의에 대한 도전, 진리와 일터, 진리와 세계적 미디어, 진리와 선교에서의 예술 등에서 사회선교본부가 추진하는 많은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사회선교 사역의 핵심은 〈사도행전〉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지역을 변화시켜서 도시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 어려운 지역 교회가 부흥하고,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회선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를 재현하며 로잔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권사칼럼

생기로운 삶을 향하여!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연이은 3일 동안의 축축한 봄비 덕분에 목이 타서 늘 어지던 나무들이 어느새 생기를 찾았다. 깊이를 더해가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뜰 안에 가득 찬다. 새 초록이 꽃망울만 내밀었던 작약이 밤새 꽃잎을 활짝 열었다. 붉다 못해 자줏빛이 감도는 우아한 자태가 가슴이 저릴 만큼 아름답다. 어느새 유월이 성큼 눈앞에 다가섰다.

새벽 5시,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 조금 더 누워 있고 싶은 유혹을 박차고 일어나 앉는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며칠 파크골프 재미에 빠져 무리하게 운동한 탓인지 온몸이 찌뿌둥하다. 혼자 사는 생활은 자칫 자기 관리에 소홀하면 늘어지기 십상이다.

나의 아침은 늘 바쁘다. 공동체 친구와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5시 30분에는 CGN으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곧이어 영어큐티와 매일 하는 영어 학습을 마쳐야 아침 일과가 끝난다. 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다. 조금씩 습관처럼 투자하는 영어 공부에도 어느새 탄력이 붙어서 쓰고 말하는 기가 훨씬 자유로워졌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대가는 없다. 말씀과 예배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아침 일정을 마치고 나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근다. 달달한 행복감이 물을 타고 온몸으로 스며들며 퍼지며 피곤이 녹아내린다. 서둘러 뜨락으로 나간다. 잔디밭의 불청객인 썩을 더불어 살자 내버려 두었더니 아예 제집인 양 들어차고 앉을 심산이다. 염치없는 녀석들을 오늘은 손을 봐주기로 작정하고 잠깐 뜯었더니 어느새 한 소쿠리 가득 찬다.

‘이 많은 썩을 어떻게 해결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주방으로 향했다. 당근 채 썰고, 파프리카와 청양고추를 다져 넣고, 부침가루와 달걀을 섞어 부치니 칼칼한 고추 맛과 썩 향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이룬다. 내진감에 새로운 레시피에도 도전해 본다. 햄, 맛살, 토마토를 토핑하고 피자치즈를 솔솔 뿌려 오븐에 구워보았다. 국적 불명의 썩 피자가 특별한 맛으로 허균을 행복하게 한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같은 날이지만,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은 내 몫이다.

가끔 내가 운영하는 펜션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내 하루에 활력이 된다. 내 집에 온 손님 이기에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노력한다. 혼자 먹던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모두 감동하고 고마워한다. 시가 있는 뜨락에서 힐링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들을 바라보면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더불어 행복하다.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린다.

늘 나를 일어서게 하는 힘은 사랑과 감사인 것 같다. 하나님의 결과품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자부심과 자족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나를 담당하고 활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함을 느낀다.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나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맡겨주셨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힘이 솟는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오늘도 씩씩하게 나의 길을 걸어간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한다. 나의 부족을 감싸 주시고, 항상 앞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나를 생기롭게 한다.

신앙에세이

복음전도자, ‘실패를 모르는 사람’



허원희 목사
(과천의왕공동체)

이번 리브소나타 ‘효고’에 출연자와 스태프를 제외한 한국인 봉사자만 600명이 넘게 참가했다. 비교적 작은 행사장에 많은 봉사자가 모여서 예전처럼 한 번에 선물을 패키징하고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부만 봉사하고, 중보기도도 전체가 모여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었다. 중보기도가 턱없이 부족해서 생각해 낸 방법이 대홀에서 리브소나타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옆에 있는 중홀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다.

리브소나타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간

절히 부르짖었다. 한국 봉사자들은 옆 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만 했는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무려 643명이나 결신하도록 해주셨다. 이전 리브소나타에서는 결신자가 많아야 200명이 넘었고, 최근에는 100명 안팎이었다. 그런데 1,800명 중에서 643명이 결신한 것은 참석자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본인들은 전도하면 대부분 거절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리브소나타 하루 전 일본 현지 교회들이 주관하는 가스펠 나이트에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사역자로 헌신했고, 분위기도 아주 뜨거웠다.

리브소나타 집회 직전 한국 봉사자들이 행사장 주변에서 전단지 나눠주는데 어느 9살짜리 꼬마가 전단지를 보고 참여하고 싶어했다. 곁에 있던 엄마에게 가져다 줄았는데 집에 가야 한다며 데려갔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는 물

론이고, 집에 있던 아빠와 형까지 집회에 데리고 왔다. 또 어떤 중학생에게 전단지를 줬더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멘 채로 집회에 참석했다.

한국 봉사자들이 쉬는 시간에 주변 카페에 가서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어디서 오셨냐며 말을 걸어왔다. 같은 시간에 개최되는 ‘장애인 국제경기’에 참석한 스태프인 줄 알고 자신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곧바로 그에게 리브소나타에 참석한 한국인임을 밝히고, 수천 명의 일본인이 모이는 집회이니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초대장 세 부를 받아갔다. 이런 일들은 보통 일본에서 일어나기 힘들다. 120명이 넘는 헌신자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무대 위로 올라가고, 아이가 부모를 전도하고, 카페에서 일본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혹자는 이 지역이 오사카 주변 관서 지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일본의 관서 지방의 사람들이

비교적 활발하고 적극적인 편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적 특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인가 영적인 기운이 감지되었다. 지금까지 온 누리교회가 일본 전역을 돌며 34번 리브소나타를 개최했고, 효고와 고베 지역 교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으며, 한국 참가자들도 역대급으로 많이 모여 열심히 기도한 것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복음 전도자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전도자는 씨 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나 가리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된다. 일본이라는 가시밭에 오랫동안 성실하게 씨를 뿌렸으니 성령님이 일본 영혼들을 막고 있는 가시덤불을 서서히 제거하고 계시는 것 같다. 리브소나타 효고에서 결신한 643명의 영혼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양육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팀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임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임
대상: 초1~중1(타렌파스, 타고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임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필리핀 의료선교 약사, 간호사 모임
일시: 7월 4일~8일
장소: 필리핀 보홀섬
문의: 010-4369-1211

브릿지33+ 예배팀 모임
분야: 메인 건반
사례배: 헌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온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온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2024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AI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

#AI #교회 미디어 #기독교 네트워크 #미디어 전략 #OTT #풍당

2024.6.3.(월) ~ 6.4.(화)

3일(월) 12:30~21:00 / 4일(화) 09:30~17:30

양재 The-K Hotel Seoul

온누리교회 성도 4만원

* 4+1 이벤트 (4인 등록 시, 1인 무료)

행사 문의 02-3275-9372

주최 · 주관 CGN fondant



FMC24

6.3(월)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이재운 목사
CGN 이사장
온누리교회



최진호 교수
미국 애모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도균 대표
Cloudflare
한국지사



사회: 박은지 교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AI문화경영연구소 소장

6.4(화)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 선택강의

- 선택 1** 음향(Church Sound Like a Pro)
교회음향 프로되기, 하루면 OK!
- 이재호 대표(미국 리빙사운드)
- 조명연 대표(CM MEDIA GROUP)
- 선택 2** 촬영/중계기술(+실습)
프로들에게 배우는 촬영과 라이브 중계!
- CGN 제작기술실(촬영/중계)
- 선택 3** AI, 디자인, 풍당 플랫폼 활용
AI 실전편, 디자인, 풍당 200% 활용하기
- CGN AI 리서치팀, CGN 커뮤니케이션실

FMC24만의 혜택 세 가지!

- 1 <바울로부터>, <오십쇼>, <바이블북>, <풍당교회학교> 등 콘텐츠 워크북 무료 증정!
- 2 기독교콘텐츠, 테크, 굿즈, 구인구직 부스! 크리스천 업체들을 한 곳에~
- 3 참여 업체와 함께 준비한 푸짐한 추첨 경품!